

마가복음 4장 24-25절의 주해와 원본문 복원

신현우*

1. 서론: 목적과 방법

이 논문의 목적은 마가 4:24-25의 주해와 원본문 복원이다. 마가 4:24-25는 다음과 같다.

24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25 ὃς γὰρ ἔχει,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καὶ ὃς οὐκ ἔχει, καὶ ὃ ἔχει ἀρθήσεται ἀπ' αὐτοῦ.¹⁾

24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개역 한글판』(1961년)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더므로 더 주실 것이다. 25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표준 새번역 개정판』(2001년)

이 본문에 관하여 사본들 간에 차이가 있다. 비록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 등에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그리고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²⁾)이 등

* 신약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1) B. Aland et al. (ed.),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itio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2) 이 부분은 개역성경에서는 “또 더 받으리니”로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더므로 더 주실 것이다”로 각각 번역되었다.

장하지만, 베자 사본과 일부 고대 라틴어 역본들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³⁾ 과연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은 원래 본문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중에 필사자가 덧붙인 것일까? 이러한 본문비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본문을 철저히 주해하여야 한다. 이 본문은 그 의미가 난해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해되느냐 하는 것이 본문 비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해는 흔히 본문 비평이라고 불리는 원본문 복원 작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본문비평을 위해 저자의 신학에의 일치, 문맥에의 적합성 등이 고려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⁴⁾ 델로벨(J. Delobel)은 본문 비평과 주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모든 본문비평적 검토는 결정적인 주석학적 요소를 포함한다. 본질적 확률(*intrinsic probability*)의 측면에서, 무엇이 저자가 가장 썼을 법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어떤 독법이 저자의 문체, 어휘, 신학에 가장 적합한가? 내용과 문맥이 검토된다. 여기서, 주해는 본문비평의 필수 요소가 된다.⁵⁾

2. 마가 4:24a-b: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2.1. 주해의 가능성 1 : 인용 이론

마가복음에서, *ἀκούω*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i) 이 동사는 대

3) 본문과 관련된 사본들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는 Aland *et al.* (ed.), *Novum Testamentum Graece*, 100의 본문비평주(critical apparatus) 참조.

4) 원본문 복원 작업에 사용되는 원독법 판단 기준들(criteria for originality)에 관해서는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209-10; K. Aland &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nd editio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1), pp.284-85 참조.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H. W. Shin, *Textual Criticism and the Synoptic Problem in Historical Jesus Research*, Contributions to Biblical Exegesis and Theology 36 (Leuven: Peeters, 2004) 참조.

5) J. Delobel,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Siamese Twin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Exegesis, and Early Church History: A Discussion of Methods*, edited by B. Aland & J. Delobel, Contributions to Biblical Exegesis and Theology 7 (Kampen: Pharos, 1994), p.102.

개 “듣다”를 뜻하지만, (ii) “주의하여 듣다”를 의미하기도 한다(마가 4:3, 9 참조). (iii) 마가 4:12; 7:14에서⁶⁾ 이 동사는 “이해하다”와 대조되어 “듣다”를 뜻한다. 여기서 이 단어는 συνίημι (“이해하다”) 동사와 대조되어 쓰였기 때문이다. 마가 4:15, 16, 20에서의 용례들도 이 동사가 반드시 “이해” 또는 “수납”의 뜻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마가 4:33에서, 이 단어는 해석의 개념을 가지는 듯하다. Καὶ τοιαύταις παραβολαῖς πολλαῖς ἐλάλει αὐτοῖς τὸν λόγον καθὼς ἠδύναντο ἀκούειν. 해석은 항상 올바른 이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마가 4:34는 비유들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설명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가 4:33의 ἀκούειν은 “해석의 과정을 동반하며 듣다,” 또는 단순히 “해석하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v) 이 동사는 또한 마가 9:7에서처럼 “순종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μου ὁ ἀγαπητός, ἀκούετε αὐτοῦ.

마가 4:24b(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가 유대 전승으로부터의 인용이라면(아래 참조), 우리는 ἀκούετε를 단순히 “너희는 듣는다”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첫번째 의미가 선택될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 βλέπετε는 명령형으로 쓰인 경우, “주의하라”를 뜻한다.⁷⁾ 마이어스(C. Myers)는 “βλέπετε는 마가복음에서 언제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적대자들의 이데올로기들을 경계하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8:15; 12:38; 13:5, 9, 23, 33)는 것을 관찰하였다.⁸⁾ 만일 βλέπετε가 여기서도 부정적인 사상에 대한 경계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은 인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이 말씀이 다양한 유대 문헌에 널리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된다. 뤼거(H. P. Rüger)는 미쉬나, 토셴타, 예루살렘 탈무드, 바빌로니아 탈무드, 미드라쉬, 탈굼 등에 유사한 구절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⁹⁾ 여러 종류의 유대 문헌이 이 말씀을 다중 증언하는 것은 이 말씀이 더 오래된 전승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곧 예수(또는 마가)의 시대에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6) 마가 4:12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 καὶ μὴ συνίωσιν); 7:14 (Ἀκούσατέ μου πάντες καὶ σύνετε).

7) See 마가 8:15 (βλέπετε ἀπὸ τῆς ζύμης τῶν Φαρισαίων καὶ τῆς ζύμης Ἡρώδου); 12:38 (Βλέπετε ἀπὸ τῶν γραμματέων); 13:5 (Βλέπετε μή τις ὑμᾶς πλανήσῃ); 13:9 (βλέπετε δὲ ὑμεῖς ἑαυτοῦς); 13:23 (ὑμεῖς δὲ βλέπετε); 13:33 (βλέπετε, ἀγρυπνεῖτε· οὐκ οἴδατε γὰρ πότε ὁ καιρὸς ἐστίν). Cf. T. W. Manson, *The Teaching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8), p.320.

8) C. Myers, *Binding the Strong Man* (New York: Orbis Books, 1988), p.178.

9) “Mit welchem Maß ihr meßt, wird euch gemessen werden,” in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60, 1969, pp.174-82.

이미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출애굽기 주해서인 메킬타(*Mekilta de R. Ishmael*)의 출애굽기 17:14에 대한 주해 부분에서 이 말씀이 전승으로부터의 인용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אמרו במדה שאדם מודד בה מודדין לו

그들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재는 그 척도로, 그들이 그에게 재어 줄 것이다.”¹⁰⁾

비교. 마가 4:24b: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במדה שאתם מודדים בה נמדד לכם)¹¹⁾

토솨타 소타(*Tosefta Sotah*) 3:1에는 동일한 말씀이 등장한다.

במדה שאדם מודד, בה מודדין לו

어떤 사람이 재는 그 척도로, 그들이 그에게 재어 줄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은 랍비 마이어(R. Meir)가 인용한 것으로 등장한다.¹³⁾ 그러나, 메킬타의 출애굽기 14:25 주해에서는 유사한 구절이 랍비 유다(R. Judah)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רבי יהודה אומר במדה שמודדו בה מודדת להם

랍비 유다가 말한다. “그들이 재 그 척도로, 네가 그들에게 재어 주었다.”¹⁴⁾

10) 히브리어 본문은 J. Z. Lauterbach (ed.), *Mekilta de-Rabbi Ishmael*, vol. 2 (Philadelphia: The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33), p.148에서 인용함. 그러나, 번역은 필자의 것임.

11) 히브리어 번역은 *The New Covenant. Peshitta Aramaic Text with a Hebrew Translation*, edited by The Aramaic Scripture Research Society in Israel, Jerusalem: The Bible Society, 1986, p.49에 토대하면서 **בה**를 추가한 것이다. 이 때, 히브리어 **אדם** (아담 “너희”)과 **אדם** (아담, “사람”) 사이에 발음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12) 히브리어 본문은 S. Lieberman (ed.), *The Order of Nashim*, vol.4, *The Tosefta According to Codex Vienna, with Variants from Codices Erfurt, Genizah MSS. and Editio Princeps* (Venice 1521)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73), p.158에서 인용함.

13) J. Neusner (tr.), *Nashim*, *The Tosefta*, vol. 3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9), p.155 참조.

14) 히브리어 본문은 J. Z. Lauterbach (ed.), *Mekilta de-Rabbi Ishmael*, vol. 1

이처럼 다양한 출처는 이 말씀의 기원이 더 오래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증거이다. 비록 위에 인용된 말씀들이 마가 4:24b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해도, 마가 4:24b는 동일한 말씀의 변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변이는 지극히 미세하다. “너희”/“너희에게”(ὑμῖν)가 “어떤 사람”(ἄνθρωπος)/“그에게”(αὐτῷ) 대신에 사용되었고, 능동태(נוודדין) 대신에 수동태(μετρηθήσεται)가 사용되었다. 탈군 이사야 27:8에는, 마가 4:24b와 흡사한 말씀이 실려 있다.

탈군 이사야 27:8:

בסתא דהוייתא כאיל בה יכילון לך¹⁵⁾

네가 재고 있는 그 척도로 그들이 너에게 재어줄 것이다.¹⁶⁾

마가 2:24b: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너희가 재고 있는 그 척도로, 너희에게 재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 4:24b가 유대 전통의 인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이어스(Myers)는 마가 4:24b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25절까지 인용으로 간주하며, 여기서 “마가가 논박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러나, 24절의 내용과 상반되는 25절은 (3.1 참조) 아마도 인용된 24b절을 논박하는 구절일 것이다. 25절은 24절에서 인용된 유대 전통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마가 4:24-25는 다음처럼 번역될 수 있다.¹⁸⁾ “너희가 듣는 바 ‘너희가 재고 있는 그 척도로 너희에게 재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후커(M. D. Hooker)는 25절과 유사한 구절이 바빌로니아 탈무드(b.

(Philadelphia: The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33), p.241에서 인용함. 번역은 필자의 것임.

15) 아람어 본문은 A. Sperber (ed.), *The Bible in Aramaic Based on Old Manuscripts and Printed Texts According to Targum Jonathan*, vol. 3: *The Latter Prophets* (Leiden: Brill, 1962), p.51에서 인용함.

16) B. D. Chilton (tr.), *The Isaiah Targum, The Aramaic Bible*, vol. 11, (Wilmington, Delaware: Michael Glazier, 1987), p.53 비교.

17) *Binding the Strong Man*, 178.

18) 여기서 마가 4:24c는 생략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 4.0의 본문비평 참조.

Berakoth 40a; *b. Sukkah* 46a-b)에 나타나므로, 이것도 널리 알려진 말씀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그러나, 후커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탈무드에 등장하는 구절들은 마가 4:25와의 문자적 유사성의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가 4:25는 인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²⁰⁾

프랑스(R. T. France)는 마가 4:24b-25가 인용이라는 마이어스(Myers)의 견해를 비판한다. 프랑스(France)는 마가 4:24b-25가 인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마가 4:24b-25의 구성요소들이 공관복음 전승 속의 다른 곳들에서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어떤 곳에서도 그것들이 비난의 표적이 되도록 의도된 징후는 없다”고 논한다.²¹⁾ 그러나, 이 논증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공관복음 전승 속에 빈번히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인용이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이 말씀이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그렇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일한 구절도 그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가 4:24b의 평행구절은 마태 7:2와 누가 6:38에 등장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비유해석의 문맥이 아니라 윤리적 문맥에서 등장한다. 또한 인용은 때로 저자의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용된 구절을 논박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행구절의 존재 자체는 마가 4:24b가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논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마가 4:24b를 인용으로 보는 데 내재하는 문제점은 ὅτι 나 ὅτι ἐρρέθη 등의 인용을 명시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명시적 표현이 없는 인용이 마가복음에서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²⁾ 마가 8:18; 13:24b-25에서는 구약의 인용이 γέγραπται (ὅτι)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승으로부터의 인용도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마가에게 가능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²³⁾

19)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London: A & C Black, 1991), p.134.

20) 25절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 3.1과 3.2 참조.

21)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p.210, 각주12.

22) 권연경(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은 필자의 원고를 읽고 이러한 제안을 해주었다(2004년 2월 12일).

23) 예를 들어 마가 2:27은 전승으로부터의 인용으로 볼 수 있다. H. W. Shin, “The Search for Valid Criteria,” [Ph.D. dissertation,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03, pp.278-79 참조.

2.2. 주해의 가능성 2 : 해석 이론

만일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이 문맥상 논박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말씀이라면, 마가 4:24의 ἀκούετε의 의미를 위(2.1)에서 언급한 네 번째 의미, 즉 “해석하다”로 볼 수도 있다. 마가 4:21-22에 의하면 (비유를 통해) 숨기는 목적은 (그 의미를) 드러내려 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가 4:24-25는 문맥상 어떻게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것인가를 다루리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해석하다”는 이러한 문맥에 맞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는 “너희들이 어떻게 (비유를) 해석하는지 주의하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τί는 대개 “무엇” 또는 “왜”를 뜻하지만, π의 번역어로 τί가 사용된 70인역 출애굽기 10:26(οὐκ οἴδαμεν τί λατρεύσωμεν κυρίῳ τῷ θεῷ ἡμῶν)에서처럼 “어떻게”를 뜻할 수도 있다. 70인역 시편 3:2에서도 동일한 용법이 나타난다.²⁴⁾ 70인역 창세기 28:17과 민수기 24:5에서, π는 ὡς(“어떻게”)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τί는 π의 번역어로서 “어떻게”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²⁵⁾ 건드리(R. H. Gundry)는 평행구절인 누가 8:18에서 τί 대신에 πως(“어떻게”)가 사용된 것처럼, τί를 부사적 목적격으로 간주하여 “어떻게”를 뜻하는 것으로 보자고 제안한다.²⁶⁾

마가복음 4장의 문맥에서 μέτρον이란 단어는 예수 비유의 해석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의 문맥에서 등장하며, 앞에 나오는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가 “경청” 또는 “조심스런 해석”을 명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는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비유를] 해석하는 그 방식으로²⁷⁾ 그것[비유]이 너희에게 해석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

24) 마태 7:14; 누가 12:49 비교.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ition, revised and edited by F. W. Dank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1007.

25) 히브리어에서와 같이, 아람어에서도 π는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L. Koehler &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vol. 2, translated and edit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Leiden: Brill, 2001], pp.551, 1912).

26) Gundry, *Mark*, 218.

27) R. H. Gundry, *Mark*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3), p.217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 ‘너희가 재는 척도’는 사람들이 그의 비유적 말씀을 듣는 방식을 가리킨다.”

가 어떻게 [비유를] 해석하는지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해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방법은 결론을 함축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해의 가능성은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24절과 25절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점이다(아래 3.1 참조). 24절과 25절이 모두 비유 해석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왜 두 절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둘째로, γάρ가 24절이 아니라 25절에 위치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만일 24b절(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도 조심해서 비유를 해석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것이라면, γάρ는 25절에 비로소 나타날 것이 아니라, 24b절에 등장했어야 할 것이다.

3. 마가 4:25:

ὃς γὰρ ἔχει,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ὃς οὐκ ἔχει, καὶ ὃ ἔχει ἀρθήσεται ἀπ' αὐτοῦ.

3.1. 주해의 가능성 1 : 인용된 격언(24b)의 비판

25절은 24b절과는 달리 비판의 표적으로 등장한 인용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25절은 마가복음의 문맥, 특히 마가 4:11-12에 제시된 제자들과 외부인들 사이의 대조에 들어맞기 때문이다.²⁸⁾ 더구나, 칼스톤(C. E. Carlston)이 지적하듯이, 24b절과 25절 사이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칼스톤(Carlston)은 이러한 모순을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한다.

두 말씀들이 원칙적으로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만일 가진 자에게 그가 가진 척도대로 주어질 것이라면(두 구절 다 이러하다),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 그가 가진 적은 분량대로 주어질 것인가(24절), 아니면 그가 가진 적은 것도 빼앗길 것인가(25절)?²⁹⁾

누가는 마가복음(또는 그가 가진 전승)에서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고 누가 8:18에서 마가 4:24b를 생략한 듯하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24절이

28) France, *The Gospel of Mark*, 211 참조.

29) C. E. Carlston, *The Parables of the Triple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1975), p.156.

인용이라면 25절은 인용이 아니라고 추측하게 한다.

25절에서는 24절에서 인용된 격언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된다. 접속사 γάρ는 항상 바로 앞에 나온 문장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떨어져 선행하는 문장에 연결되어 이유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가 11:13에서 ὁ γὰρ καιρὸς οὐκ ἦν σύκων은 바로 앞에 나오는 καὶ ἐλθὼν ἐπ’ αὐτὴν οὐδὲν εὔρειν εἰ μὴ φύλλα가 아니라 더 앞선 καὶ ἰδὼν συκὴν ἀπὸ μακρόθεν ἔχουσιν φύλλα ἦλθεν, εἰ ἄρα τι εὐρήσει ἐν αὐτῇ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³⁰⁾

24절에서 인용된 격언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비유의 의미는 그 격언이 암시하듯이 듣는 자가 준비된 만큼 비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비밀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고, 그 비밀을 갖지 못한 자들은 비유를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마가 4:11-12 참조). αἶρω(“빼앗다”)는 마가 4:15에서도 사용되어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행위를 묘사한다.³¹⁾ 여기서 빼앗기는 것은 바로 예수의 비유일 것이다. 따라서, ὃς οὐκ ἔχει, καὶ ὃ ἔχει ἀρθήσεται ἀπ’ αὐτοῦ는 “비밀(예수의 비유 해석)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들은 바 비유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즉, 그는 심지어 그 비유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를 뜻할 수 있다.³²⁾

24b절은 상업적인 곡물 거래 계약에 전형적인 용어이다.³³⁾ 따라서, 24b절은 상업의 원리, 즉 동일한 척도로 공평하게 재어 교환하는 원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농업의 원리가 대조된다. 씨앗은 양질의 토양에서 놀라운 생산성을 보이지만, 실패할 경우 생산 없이 씨앗마저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농업의 원리를 표현하는 25절은 마가 4:3-9, 14-20에 등장하는 씨앗의 비유의 요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³⁴⁾ 마가 4:24-25에서 상업의 원리와 농업의 원리가 대조된 것이라면, 본문의 의미는 명확하다. “하나님의

30) C. A. Evans, *Mark 8:27-16:20*, Word Biblical Commentary 34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p.157.

31) Gundry, *Mark*, 217.

32) Hooker는 이와 유사한 해석을 한다(*Mark*, 134):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 그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 - 은 그 나라의 모든 기쁨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 - 제공되고 거절된 말씀 - 마저 잃을 것이다.”

33) France, *The Gospel of Mark*, 210.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B. Couroyer, “DE LA MESURE DONT VOUS MESUREZ IL VOUS SERA MESURÉ,” in *Revue Biblique* 77, 1970, 366-70 참조.

34) Hooker, *Mark*, 134: “그것은 아마도 1-20절에 담긴 생각들이 마가에 의해 요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J. Marcus,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90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6), p.156 비교: “... ‘가진 자들’은 4:11a의 내부인들, 4:20의 좋은 토양이며, ‘가지지 못한 자들’은 4:11b-12의 외부인들, 4:15-19의 나쁜 토양이다.”

나라를 동일한 척도로 서로 교환하는 상업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농업에서처럼 단지 한 알의 씨앗이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창조적 생산성과 씨앗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치명적 손실 사이의 대조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가 4:11-25의 구조는 다음처럼 분석될 수 있다.

A	11-13	하나님 나라의 비밀
B	14-20	비유 해석
A'	21-25	이 비밀의 중요성

25절의 가진 자(ὁς ἔχει)와 가지지 못한 자(ὁς οὐκ ἔχει) 사이의 대조는 11절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너희”(ὑμῖν)와 그것을 받지 못한 “바깥 사람들”(ἐκείνοις τοῖς ἔξω) 사이의 대조와 평행을 이룬다.³⁵⁾ 따라서, 25절은 11-13절을 토대로 해석될 수 있다. 예수로부터 비밀(즉, 14-20절에 나오는 비유 해석)을 받은 자들은 더욱 더 많은 것들을 받을 것이지만(즉, 다른 비유들도 깨달을 것이지만),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들(즉, 14-20절의 비유 해석을 듣지 못한 자들)은 다른 비유들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13절 참조).³⁶⁾ 마태 13:11-12는 마가 4:11과 마가 4:25를 평행시킴으로써, 두 구절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전해 내려오는 격언은 “너희가 재고 있는 그 척도로 너희에게 재어질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비례적 보응의 원리가 그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24-25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유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³⁷⁾ 인용의 일부로서 24절에 포함될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저자가 기록한 본문(즉, 원본문)에는 본래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의 원본문성에 대한 본문비평적 논의는 아래 4.0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5) J. Marcus, *Mark 1-8*,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p.321도 이러한 진단을 한다. “우리는 4:10-12의 잔혹한 이분법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4:25와 구조적으로조차 유사하다.”

36) Marcus, *Mark 1-8*, 320 비교: “마가의 견해에 의하면, ...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에 대한 통찰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욱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러한] 통찰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37) France, *The Gospel of Mark*, 211.

3.2. 주해의 가능성 2 : 마가 4:24에의 추가적 설명

ἔχει는 “9절, 23절에 등장하는 표현인 εἴ τις ἔχει ὡτα ἀκούειν ἀκούετω를 반영하고자 의도된” 듯하다.³⁸⁾ 이 구절들에서 ὡτα ἀκούειν(“들을 귀”)은 아마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바른 비유 해석 방법을 가진 자들은 비유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바른 비유 해석의 방법을 갖지 못한 자들은 비유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들은 것은 마침내 그들로부터 빼앗길 것이다. 그것들은 잊혀지거나, 무시되거나, 거부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마가 4:24c: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어떤 사본들은 마가 4:24에서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본들은 이것을 빠뜨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본들은 긴 독법(reading)인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을 가진다. 그 외에 다른 변형들도 나타난다.³⁹⁾

① -	D W 565. 579 b d e l vg ^{mss} sa ^{ms} Cyprian
②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 B C L Δ 700. 892. 2427 aur c ff ² i r ¹ vg bo ^{pt} eth
③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	A 0107. 0167 f ^{1.13} Byz Lect q sy ^{p,h} sa ^{mss} bo ^{pt} geo slav
④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	G l 292
⑤ καὶ περισσευθήσεται ὑμῖν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	Θ
⑥ προστεθήσεται γάρ ὑμῖν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	28
⑦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	33

38) France, *The Gospel of Mark*, 211. 밑줄은 France의 것임. 또한, Marcus, *Mystery*, 153-56 참조.

39) 사본들에 관한 정보를 위해서는 B. Aland et al. (ed.),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p.133가 사용됨.

- ⑧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 1241
 ⑨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f
 (et adicietur vobis credentibus⁴⁰)
 ⑩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arm⁴¹)

위의 독법들 중에 ④, ⑤, ⑥, ⑦, ⑧, ⑨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소수의 사본들에 의해 지원 받는다. 따라서, 이 독법들은 원독법이 아니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 독법들의 기원은 독법 ③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i. ④는 ③으로부터 발생한 듯하다. 필사자들은 유사종결(*homoeoteleuton*) -θήσεται ὑμῖν으로 인해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을 빠뜨렸을 것이다. ii. ⑤의 발생도 ③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περισσευθήσεται는 마태 13:12에 유사화(*assimilation*)된 것일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 이 동사는 단지 한 번 12:44에서 사용되었지만, 마태는 이 동사를 다섯 번 사용하기 때문에, 마태의 문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περισσευθήσεται는 마태복음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추측된다. ⑤는 또한 더 친숙한 단어로의 변화일 수도 있다. 동사 περισσεύω는 신약에서 약 39번 사용되었지만,⁴²) προσίθῃμι 동사는 약 18번⁴³)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⁴⁴) iii. ⑥은 필사자의 주해적 고려에 의하여 ③으로부터 발생했을 것이다. 필사자는 ③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iv. 독법 ⑦은 필사자가 독법 ③에서 ὑμῖν이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음을 보여준다. v. 독법 ⑧은 독법 ③으로부터 καὶ의 단순한 생략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다. vi. ⑨는 필사자/번역자가 선본(*Vorlage*)에 있는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아마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40) *Itala. Das neue Testament in altlateinischer Überlieferung*, vol. 2, edited by A. Jülicher, Berlin: Walter de Gruyter, 1970, p.31.

41) J. B. Bauer, "Et adicietur vobis credentibus Mk 4 24f," in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71, 1986, p.248.

42) 마태 5:20; 13:12; 14:20; 15:37; 25:29; 마가 12:44; 누가 9:17; 12:15; 15:17; 21:4; 요한 6:12, 13; 행 16:5; 롬 3:7; 5:15; 고전 8:8; 15:58; 고후 1:5; 3:9; 4:15; 8:2, 7; 9:8, 12; 엡 1:8; 빌 1:9, 26; 4:12, 18; 골 2:7; 살전 3:12; 4:1, 10. 사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곳: 롬 15:13; 1 고전 14:12.

43) 마태 6:27; 6:33; 마가 4:24; 누가 3:20; 12:25, 31; 17:5; 19:11; 20:11, 12; 행 2:41, 47; 5:14; 11:24; 12:3; 13:36; 갈 3:19; 히 12:19. 변형이 나타나는 마가 4:24; 누가 20:11; 12; 갈 3:19를 제외하면 15번.

44) 통계를 위하여 M. S. Bushell, *Bible Works for Windows*, version 3.5 (Montana: Hermeneutika Software, 1996)가 사용됨. 사본 정보를 위해서는, Aland *et al.* (ed.), *Novum Testamentum Graece*가 사용됨.

위의 독법 ①, ②, ③ 중에서 가장 원독법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본문비평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마가복음 문맥에서 각 독법이 어떻게 주해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만일에 독법 ①이 원독법이라면, 마가 4:24-25는 주해의 가능성 1 또는 2처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i) 우리는 [비유 해석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바 [격언인] “너희가 재고 있는 그 척도로 너희에게 재어질 것이다”라는 비례적 상업적 거래 원리를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비유 이해에서] 창조적 생산과 치명적인 손실이 대조되는 농업적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ii)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 [비유가] 우리에게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메쯔거(B. M. Metzger)에 의하면, 독법 ①은 ②로부터 유사종결(*homoeoteluton*) -θήσεται ὑμῖν에 의하여 발생하였다.⁴⁵⁾ 이에 덧붙여 우리는 마가 4:24b가 만일에 인용이더라도, ②(“그리고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가 원독법(original reading⁴⁶⁾)일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독법 ②는 적게 가진 자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그가 가진 것마저 잃을 것이라는 생각(25절)에 대조되는 적게 가진 자도 그의 적은 분량에 따라 받을 것이라는 생각(24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주해 가능성 1을 선택할 경우에도 독법 ②가 원독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간의 증거들은 독법 ②의 원본문성(originality)을 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독법 ②가 원독법이 아니라는 증거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만일 ② καὶ προσ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 우리의 마가 본문에 있다면 이 독법은 마가 문맥에서 어떻게 주해되는가? 이 독법은 바로 앞에 나오는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에 연결된다.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재어진다는 것은 곧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내포한다. “주다”는 의미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ὅς γὰρ ἔχει,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여기서, προσεθήσεται 대신에 δοθήσεται가 나타난다. 따라서, “증”이라는 아이디어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등장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독법 ②가 마가의 것이 아니라 필사자의 첨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장황한 προσεθήσεται는 알포드(H. Alford)가 제안했듯이 본래 δοθήσεται에 대해 필사자가 난외에 적은 주해였을 것이다.⁴⁷⁾

건드리(Gundry)는 마가의 문체적 특징인 중복성(duality)에 맞는 듯한 ②를

45) B. M. Metzger (ed.),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ition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1994), p.71.

46) 원독법 = 원문대로 읽기, 즉 원본문에 담겨 있었던 표현.

47) *The Greek Testament* I, 2nd edition, (New York: Deighton, 1898), p.335.

원독법으로 간주한다.⁴⁸⁾ 그러나, 독법 ②는 사실 24절의 평행구조를 깨뜨린다(아래 참조). 비록 주해의 가능성 2(2.2 & 3.2)가 전제되더라도, 마가복음의 중복성은 25절이 24절에 담긴 생각(비유 해석 방법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명확하게 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중복성을 위해 우리는 독법 ②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건드리(Gundry)는 ②의 원본문성을 주장하기 위해 마가가 예수께서 비유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점도 지적한다.⁴⁹⁾ 그러나, 이것도 ②의 원본문성의 증거로서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②가 없어도 이러한 강조점은 얼마든지 4:24-25에 담겨지기 때문이다(위의 3.1 참조). 따라서, ②의 원본문성은 건드리(Gundry)의 논증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주해 가능성 1(2.1 & 3.1)이 전제된다면, 어떤 유대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법 ②는⁵⁰⁾ 4:24b와는 달리 인용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원독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해 가능성 2(2.2 & 3.2)도 ②가 원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한다. 독법 ②는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가 4:25b는 *καὶ ὁ ἔχει ἀρθήσεται ἀπ' αὐτοῦ*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은 “춤”에 반대되는 “빼앗음”의 개념을 담고 있다. 즉, 25절은 “춤”과 “빼앗음”의 대조를 보인다. 한편, 독법 ②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은 24절이 더욱 “춤”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든다. 독법 ②가 빠진다면, 24절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대조되어 균형 잡히게 된다. 우리가 좋은 척도를 사용하면, 동일한 척도에 의해 혜택을 입을 것이지만, 우리가 나쁜 척도를 사용하면, 동일한 척도에 의해 해를 입을 것이다.

*ὑμῖν*의 반복(*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도 독법 ②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의 원본문성을 의심하게 한다. 저자라면 아마도 *ὑμῖν*을 한번만 사용하며 *μετρηθήσεται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라고 적었을 것이다. 독법 ⑦은 사본 33과 연관된 필사자가 실제로 *ὑμῖν*의 반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두번째 *ὑμῖν*을 삭제했음을 암시한다. 독법 ⑩도 어떤 필사자 또는 번역자가 독법 ②에서 두번째 *ὑμῖν*이 불필요하다고 여겼음을 암시한다.

더구나, 독법 ②는 바우어(J. B. Bauer)가 제안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에로의 유사화(*assimilation*)일 것이다.⁵¹⁾ 이러한 제안은 저자들의 문

48) *Mark*, 218. 마가복음에 나타난 중복성에 관해서는 F. Neyrinck, *Duality in Mark*, revised edition,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arum lovaniensium* 31 (Leuven: Peeters, 1988) 참조.

49) *Mark*, 218.

50) France, *The Gospel of Mark*, 211.

51) Bauer, “Et adicietur vobis credentibus Mk 4 24f.”

체 연구에 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προσίθῃμι 동사는 주로 누가에 의해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누가복음 6-7번, 사도행전 6번),⁵²⁾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마가는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δίδωμι 동사를 사용한다(약 39번). 그러므로, 우리는 독법 ②가 누가복음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마침 누가 12:31에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 등장하므로 이러한 추측의 신빙성은 높아진다.⁵³⁾

게다가,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은 마가 4:24-25의 평행구절인 누가 8:18//마태 7:2; 13:12에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 본래 마가복음에 들어있었다면, (두 자료설을 전제할 경우) 그것은 최소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중에 하나로는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함께 일치하여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을 빠뜨린 것은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 마가복음에 원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아가, 독법 ②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 없으면 마가 4:24의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은 더 나은 운율을 지닌다.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비록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의 원본문성을 인정하면서도, 겔리히(R. A. Guelich)는 이 구절이 구조적 운율과 대칭을 깨뜨린다는 것을 인식했다.⁵⁴⁾ 마커스(J. Marcus)는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 “원본문의 구조적 균형과 보상은 행위에 비례한다는 깔끔한 생각 모두를 깨뜨린다”는 것을 파악했다.⁵⁵⁾

마커스(Marcus)는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의 원본문성을 전제하고 “원마가적인 탈리온의 균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하심에 대한 마가의 강조에 의해 손상된다”고 주장한다.⁵⁶⁾ 그러나,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이 필사자의 추가라고 가정하면, 마가의 탈리온이 필사자의 은혜에 대한 강조에 의해 손상된다고

52) 신약성서에서 약 18번 (변형이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면 15번) 사용된 중에 누가에 의해서만 약 13번 (변형이 나오는 누가 20:11을 제외하면 12번) 사용됨.

53) 물론 독법 ②가 마태 6:33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마태는 προσίθῃμι 동사를 2번 사용한다(6:27, 33).

54) *Mark 1-8:26*, Word Biblical Commentary 34A (Dallas, Texas: Word Books, 1989), p.233.

55) *Mystery*, 159.

56) *Mystery*, 159.

해석된다. 독법 ②는 은혜가 숨결 틈이 없는 4:24b에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가는 4:24b가 4:25에 의해 반박된 인용구임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다.

만일 대다수의 사본에 나타나는 독법 ③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이 우리의 본문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비유 해석을 위하여) 어떤 척도를 사용하든지 간에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즉, 깨달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그러나, 마가 2:25는 비록 듣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주해 가능성 2(2.2 & 3.2)가 전제될 경우, 독법 ③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독법 ⑨의 발생은 어떤 필사자가 실제로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이 문맥에 맞지 않음을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만일 주해 가능성 1(2.1 & 3.1)이 전제된다면, 독법 ③은 마가 4:24-25의 문맥에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유대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독법 ③은 주해 가능성 1이 요구하는 인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독법 ③은 주해 가능성 1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주해의 가능성을 택하든지 독법 ③은 원독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독법 ②가 위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원독법이 아니라면, 독법 ②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독법 ③도 원독법이 아닐 것이라는 추론에 의해 지지된다.

5. 요약과 결론

원본문 복원을 위한 본문비평 작업에서 주해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각 독법들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주해해야 어떤 독법이 문맥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해는 본문비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은 본문비평이 주해의 토대인 본문을 변경하여 주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주해와 본문비평 간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순환은 종종 자신의 입장을 독단적으로 정당화하는 주관적이고 사악한 순환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순환이 되어 우리의 선입견을 극복하게 도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가 4:24-25를 두 가지로 주해하였다. 주해 가능성 1: “너희가 들은 바 ‘너희가 재는 그 척도로 너희를 위하여 재어진 바 될 것이다’라는 격언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비밀스런 가르침을] 가진 자에게는 [비유의 의미가] 주어질 것이지만, 갖지 못한 자로부터는 그가 가진 것[비유 자체]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주해 가능성 2: “너희는 어떻게 비유를 해석할

지 조심하라. 너희가 비유를 해석하는 그 방식으로 비유가 너희에게 해석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른 비유 해석 방법을 가진 자는 비유들을 깨달을 것이지만, 바른 비유 해석 방법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 4:24c(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는 이러한 문맥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은 주해 가능성 2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너희는 어떻게 비유를 해석할지 조심하라. 너희가 비유를 해석하는 그 방식으로 비유가 너희에게 해석될 것이며,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른 비유 해석 방법을 가진 자는 비유들을 깨달을 것이지만, 바른 비유 해석 방법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본문의 “좁”과 “빠얏음”의 균형을 깨고 “좁”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24절과 25절의 대립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마가 4:24c는 주해 가능성 1에는 맞는 듯이 보인다. “너희가 들은 바 ‘너희가 재고 있는 그 척도로 너희에게 재어질 것이며,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는 격언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비밀스런 가르침을] 가진 자에게는 [비유의 의미가] 주어질 것이지만, 갖지 못한 자로부터는 그가 가진 것[비유 자체]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24b와 함께 유대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 4:24c는 인용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주해 가능성 1의 문맥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해 가능성 1이나 2의 문맥 모두에 맞지 않는 마가 4:24c(“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는 비록 권위 있는 고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에 의해 지원 받더라도, 원독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다른 본문비평적 근거들에 의하여 지지된다. (i) 마가의 문체: 마가는 προσίθῃμι 동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동사는 마가 문체에 맞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ii) 운율: 마가 4:24c는 마가 4:24b(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의 구조적 대칭과 운율을 파괴한다. (iii) 불필요한 반복: 마가 4:24c는 앞서 나오는 μετρηθήσεται와 뒤에 나오는 δοθήσεται에 담긴 “주어짐”의 개념을 반복한다. 또한 ὑμῖν도 불필요하게 반복된다.

그렇다면, 마가 4:24c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추리될 수 있다. (i) 어떤 필사자가 마가 4:24가 지나치게 인과응보적이며 은혜가 숨길 공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ii) 그는 누가 12:31과 마태 6:33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필요한 것들마저 (은혜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iii) 그는 난외에 누가 12:31과 마태 6:33에 등장하는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을 적어 넣으며 복음서 전체를 조망하는 입장에서 본문을 주해한다. (iv) 후에 이 난외주가 포함된 사본을 선본으로 삼아 필사하던 다

른 필사자가 이 난외주를 본문으로 집어넣으며 문장의 연결을 위해 *καί*를 추가한다.

마가 4:24c를 본문으로부터 제외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본문에 도달한다.

24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 ἐν ᾧ μέτρῳ μετρεῖτε μετρηθήσεται ὑμῖν. 25 ὃς γὰρ ἔχει,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καὶ ὃς οὐκ ἔχει, καὶ ὃ ἔχει ἀρθήσεται ἀπ’ αὐτοῦ.

2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바 ‘너희가 재는 그 척도로 너희를 위하여 재어진 바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25. 왜냐하면,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지만,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⁵⁷⁾

본문비평이나 주해나 모두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이러한 분야에서 실험이 불가능하다. 저자가 최초로 쓴 원본문은 사라졌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본문을 가진 각종 사본들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오늘날 본문을 통해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를 인터뷰할 수 없고, 오직 본문을 다양하게 읽은 독자들의 연구를 담은 주석들과 논문들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비록 본문 비평과 주해 작업을 하며 증거에 토대를 둔 학문적 추론을 하지만, 이러한 추론의 결과가 옳은지 확인할 길은 없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해와 본문비평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들은 항상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진리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는 잠정적인 안내자일 뿐이다.

57) 예수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존대어를 사용하는가이다. 헬라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21세기 한국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면, “조심하라”고 하실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실까? 아니면, “조심하오”라고 하실까? 필자는 편의상 권위와 함께 인품을 담기에 적합한 “조심하십시오”를 선택했지만, 성경의 독자들은 “조심하라”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번역 이론 연구, 현대 한국인의 어체 연구, 성경 독자들의 종교언어심리 연구 등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Abstract>

Exegesis and Textual Criticism in Mark 4:24-25

Hyeon-Woo Shi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the original text of Mark 4:24-25. For this purpose, Mark 4:24-25 has been investigated exegetically. Exegesis is an essential step in textual criticism. To choose a reading which fits the context, we need to make an exegesis of each reading in its context. Exegesis thus influences textual criticism, as textual criticism can also influence exegesis by changing the text. This mutual influence constitutes an hermeneutic circle between exegesis and textual criticism.

We have interpreted Mark 4:24-25 in two ways. (i) “Beware of what you hear: ‘With the measure which you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For it [i.e. the meaning of the parables] will be given to him who has [the secret interpretation from Jesus], but from him who does not have [it] even what he has [i.e. the parables] will be taken away.” (ii) “Beware how you interpret [the parables]. With the measure [i.e. way] which you measure [i.e. interpret the parable], it will be measured [i.e. interpreted] to you. For it [i.e. the meaning of the parable] will be given to him who has [a right way of interpretation], but from him who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i.e. the parable itself, or a wrong way of interpretation] will be taken away from him.”

Mark 4:24c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is located in this context, and does not fit the context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exegetical possibility ii above. Mark 4:24c breaks the balance between “giving” and “taking away,” emphasizing the idea of “giving.” Thus, v.24c sharpens the contrast between v.24 and v.25. This contrast does not fit exegesis ii. Though Mark 4:24c appears to fit the exegetical possibility i, it may not be regarded as a part of the quotation since it does not occur together with Mark 4:24b in any Jewish literature. Thus, Mark 4:24c does not fit exegesis i.

Therefore, Mark 4:24c, which does not fit the context, may be regarded as being secondary. This judgement is supported by more pieces of text-critical

evidence. (i) The style of Mark: Mark 4:24c does not seem to fit Marcan style, since Mark does not use the verb προστίθημι. (ii) Rhythm: Mark 4:24c breaks the structural balance and rhythm. (iii) Repetition: Mark 4:24c repeats the idea of "giving" which is contained in μετρηθήσεται and δοθήσεται. Further, ὑμῖν is also unnecessarily repeated.

If Mark 4:24c is secondary, how could this reading have occurred? The process of its occurrence can be conjectured as follows. (i) A scribe finds that Mark 4:24 allows no room for grace. (ii) He discovers that Luke 12:31 and Matt 6:33 state that God gives us what we need by grace. (iii) In the margin, he writes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as an intertextual gloss) which occurs in Luke 12:31 and Matt 6:33. (iv) Another copyist inserts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into the text, adding καί to link it to the preceding passage.